

투데이 칼럼

유머 리더자가 되자

**한** 국민에게 낯이 웃기는 것이 곤혹스럽다. 웃기기 위해 뜯개그까지 해야 하는 것이 좀 가벼워 보이고 체신 머리없이 보이며 정말 남들을 웃길 수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인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지 말자. 생각만 하나씩 바꿔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평소의 고정관념, 상식이라고 여겼던 편견들을 뒤집어 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속담을 뒤집어도 좋고, 상식을 뒤집어도 좋고, 과학법칙을 뒤집어도 좋고 예외법칙을 뒤집어도 좋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구두를 닦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와 말했다고 한다.

“각하!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야 합니까?” 그러자 링컨은 대통령이 이렇게 응수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야 합니까?” 하는 대신 다른 말은 그대로 두고 “남의 구두”라는 말만 살짝 끼워 넣고도 예상밖의 반문을 만들어냈다.

링컨처럼 하면 된다. 보통의 표현에서 한마디만 비틀어도 웃음은 크게 터진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고정관념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전환하고 웃음의 소재를 찾아 응용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신이 진심으로 일타에 활력을 불어넣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크다면 그 긍정의 힘으로 권 리더가 될 것이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유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하는 좋은 유머를 창조할 수 없다.

긍정적인 사고는 유머 창조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할 수 없는 몇 십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는 “당신은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에디슨의 힘 있는 답변이었다.

둘째, 뒤집어서 생각하라. 긍정적 사고가 유머 창조에 필요한 심성이라면, 이것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안쪽과 뒤쪽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다양한 유머기법들 중에서도 언제나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핵심 요소다.

셋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때나 있는 유머를 구사하기 위해 선택 시간·장소·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 즉 TPO(Time place Occasion)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유머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빠르고 효과도 훨씬 더

크다.

넷째, 온몸으로 실천하라. 유머의 표현이나 전달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웃음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때로는 말과 기치로, 때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리더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다.

웃기기 위해 뜯개그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체면으로는 좀처럼 시도하기 힘든 “모험”인 까닭이다.

하지만 이는 유머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다섯째, 표정에 웃음을 담아야. 유머란 두뇌회전에 의한 기발한 말로만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있는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유머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웃음과 기쁨, 희망을 전달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유머는 웃음을 담은 표정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현대는 감성과 편의시대이다. 웃음이 있는 삶으로 건강하고 행복을 창조하자 웃으면 복이 들어오므로 잘 사는 길이다.

사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문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은 2%를 넘는 경우다.

정부와 여당은 이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것이다.

50억 정도로 올리게 되면 큰 손들이 이탈이 없고 잠재적 큰 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축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야가 대주주 물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점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텃밭 활동으로 불면증 치료

텃밭 가꾸기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면은 낮 동안 쌓인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풀고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나 성인의 73.4%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수면장애 환자는 2021년 기준 68만여 명에 이른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잠들지 못해 힘든 도시민에게 규칙적인 텃밭 활동만으로 더 나은 수면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텃밭 활동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프로그램 통해 진행했다. 낮 동안 신체 활동과 햇볕 쬐기를 불면증 환자가 직접 느끼게 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 리듬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면에 좋은 상추차 등 채소류 섭취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 장애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12회에 걸쳐 밭이랑 만들기, 퇴비 만들기 활동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작물 재배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수면 효율이 낮은 참여자들은 텃밭 활동을 통해 수면 형태와 질이 크게 향상됐다. 누워있는 시간 중 잠든 시간을 나타내는 수면 효율은 뇌파와 안구운동, 혈중산소포화농도 등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로 확인했다.

불면증 환자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이 많다.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성별, 연령대별 수면의 질, 신체 운동량, 스트레스 등을 더욱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도시 텃밭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연 치료이자 여가 활동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텃밭 활동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낮 시간을 보내는 데서 출발한다. 신체 활동과 햇볕 쬐는 시간의 긍정적 효과를 몸소 체험해 도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조산아 돌보는 팔레스타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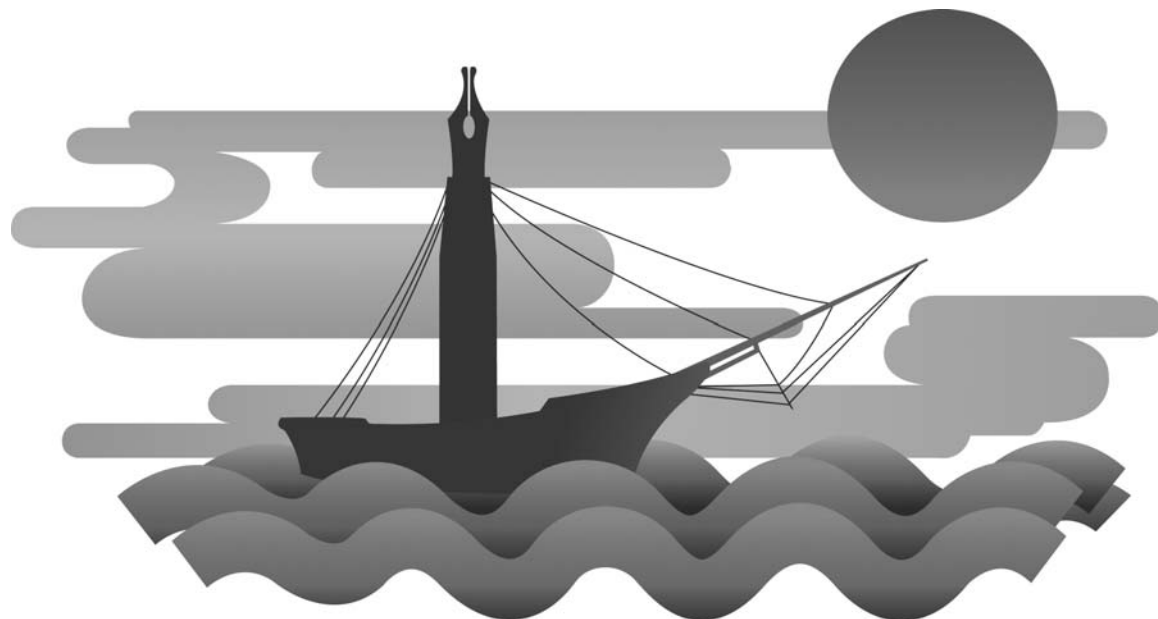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의 알 이크사 병원에서 한 팔레스타인 의사가 조산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칠레 대통령과 긴밀히 대화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허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밀레이 신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등과 긴밀한 관계를 공약한 바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